

브라질 닭고기산업의 현황과 전망*

허 덕

1. 머리말

브라질 닭고기산업은
생산량 1,103만 톤으
로 세계 3위, 수출량
3,242천 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USDA)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브라질산 닭고기 생산량은 1,103만 톤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 3위이며, 수출량은 3,242천 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산업이다. 특히 수출에 있어서는 최근 세계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브라질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세계 150 개국 이상에서 브라질산 닭고기가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9월 국제금융위기로 해외시장이 냉각됨에 따라 2009년 생산량은 1,098만 톤(잠정)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2. 닭고기 생산 현황

생산 규모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은 1998년 4,854천 톤에서 2009년 10,980천 톤(잠정)으로 11년간 126.2% 증가하였다. 이에 맞추어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1998년

* 본 내용은 일본 농축산진흥기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원이 작성하였다(huhduk@krei.re.kr, 02-3299-4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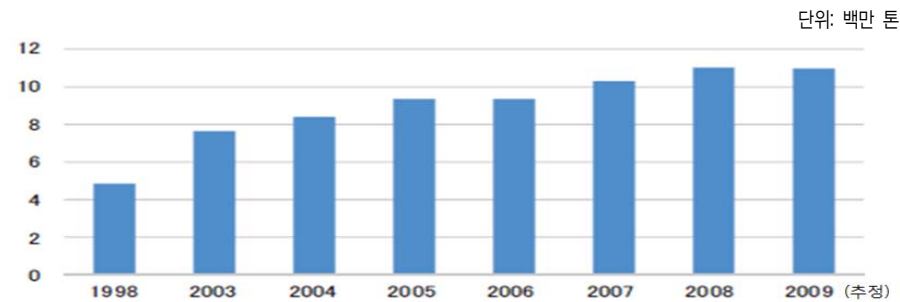
22.9kg에서 2009년 39.0kg(추정)으로 70.3% 증가하였다. 브라질 닭고기 생산량의 69%가 브라질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즉, 국내 소비자의 닭고기 식품 소비 증가가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6년과 2009년에는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 이유는 2006년에는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브라질 국내외의 소비자들이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닭고기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2009년의 경우에는 2008년 9월 국제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특히 해외에서의 시장 구매력이 떨어졌고, 소비가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이 억제된 데 그 원인이 있다.

닭고기가 생산되는 지역의 분포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남부(파라나주, 산타카타리나주, 리오그란데드술주), 남동부(상파울로주, 미나스제라이스주), 중서부(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매트그로소주) 지역에서만 정부에 등록된 식조처리장이 163곳이며(전체의 88.6%), 이들 지역의 연간 처리 마리수는 4,360백만 마리(84.2%), 연간 생산량은 9,637천 톤(87.3%) 등, 이 지역이 주요 생산지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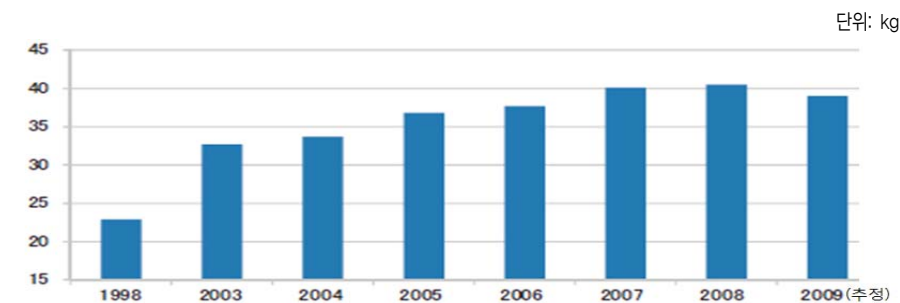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은 1998년 4,854천 톤에서 2009년 10,980천 톤(잠정)으로 11년간 126.2% 증가하였다.

그림 1 닭고기 생산량 추이



자료: 브라질병아리생산자협회(APINCO), 미국농무성(USDA)

그림 2 브라질의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추이



자료: 미국농무성(USDA)

그림 3 브라질 닭고기 주요 생산지역



표 1 2008년 지역별 닭고기 생산 현황

단위: 천 수, 천 톤

지역	주	식조처리장수	처리마리수	생산량
남부	계	80	2,809,713 (54.3%)	6,023 (54.6%)
	파라나	36	1,222,124 (23.6%)	2,560 (23.2%)
	산타카타리나	24	861,454 (16.6%)	1,814 (16.4%)
	리오그란데스울	20	726,135 (14.0%)	1,649 (14.9%)
남동부	계	67	1,051,702 (20.3%)	2,490 (22.6%)
	상파울로	49	730,528 (14.1%)	1,680 (15.2%)
	미나스제라이스	18	321,174 (6.2%)	810 (7.3%)
중서부	계	16	498,120 (9.6%)	1,124 (10.2%)
	고이아스	7	247,197 (4.8%)	551 (5.0%)
	마토그로소스울	5	128,315 (2.5%)	290 (2.6%)
	마토그로소	4	122,608 (2.4%)	283 (2.6%)
기타		21	816,021 (15.8%)	1,396 (12.7%)
전국		184	5,175,556(100.0%)	11,033(100.0%)

주1: MAPA에 등록된 식조처리장 수

자료: 브라질농무성(MAPA), 브라질양계협회(U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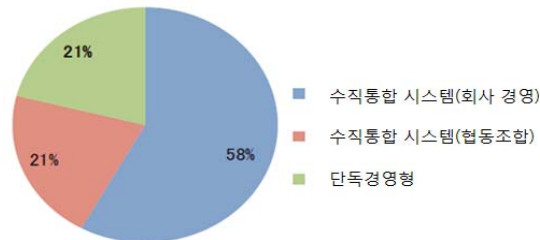
생산체계

브라질의 닭고기 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공정의 수직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례로 꼽힌다.

닭고기는 병아리 부화, 사육, 처리, 가공까지 일련의 공정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에 총 생산량은 가장 첫 단계인 브로일러용 병아리 공급량에 의해 컨트롤 된다. 따라서 수직통합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브라질에서는 1960년대에 산타카타리나주부터 도입되었다. 브라질의 닭고기 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공정의 수직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례로 꼽힌다. 2008년에는 전 농장의 79%가 회

사 또는 협동조합 경영에 의한 수직통합 시스템으로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어, 시장의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서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림 4 2008년 수직통합 시스템 도입 비율



브라질 농업연구개발공사(EMBRAPA)가 조사한 브라질 남부(산타카타리나주)의 평균적인 생산지표는 <표 2>와 같다. 출하일령 42일, 연간 출하회수 6.5로트이므로, 계사가 비는 기간을 14~15일로 가정하면, 365일 풀가동하는 효율적 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하 시 1마리당 중량은 2.3kg이다. 여기에 필요한 생산비용을 따져보면, 일반적인 양계장(수직통합 시스템 계약 양계장: 무창 계사에 2만 마리를 사육)을 가정할 경우 1마리 당 3.810레알(약 2,584원)로, 이 지역의 최저 출하가격은 kg당 약 1.66레알(약 1,126원)로 계산된다. 그러나 실제 국내 육계 가격은 이보다 낮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수직통합 시스템에서 출하 시 양계장에 대해 1마리 당 0.4~0.5레알(약 270~339원)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양계생산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양계장의 수익으로 볼 수 있다.

표 2 2008년 산타카타리나주 닭고기 생산지표

항목	출하회수(로트/년)	출하마리수(마리/로트)	출하일령(일)	폐사율(%)	중량(kg)	사료요구율
생산지표	6.5	18,000	42	2.7	2.3	1.87

자료: 브라질농업연구개발공사(EMBRAPA)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표 3 2009년 9월 파라나주 닭고기 생산비용 내역

	시설비	병아리구입비	사료경비	위생비	운반비	인건비	기타	합계
비용 (레알/마리)	0.4	0.6	2.5	0.0	0.1	0.1	0.2	3.8
(원/마리)	253.0	393.4	1681.5	2.1	57.0	57.7	139.7	2584.2
비율(%)	9.8	15.2	65.1	0.1	2.2	2.2	5.4	100.0

주1: 모델: 수직통합 시스템 계약 양계장, 무창계사 2만 마리/계사

주2: 1레알 = 678.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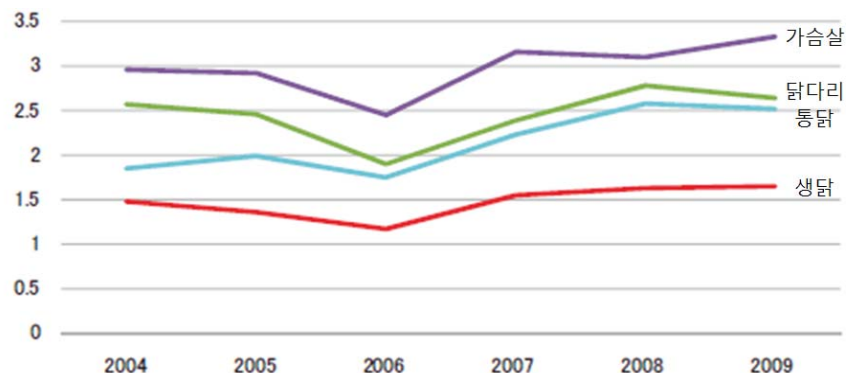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농업연구개발공사(EMBRAPA)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생산비용 중 사료와 관련된 경비는 2,479레알(약 1,682원)로, 생산비용 전체의 65.1%를 차지하여, 브라질과 같은 사료 생산지에서도 사료와 관련된 비용은 크다. 더욱이 브로일러용 배합사료의 65%가 옥수수이며, 2008년 수확량(51,003천 톤)으로 보면, 남부가 37%, 남동부가 21%, 중서부가 31%를 차지하여, 닭고기 생산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서부의 생산량은 전체 닭고기의 10.2%(2008년) 밖에 생산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이 지역의 생산량을 얼마나 증가시킬지 혹은 유통 인프라를 얼마나 정비할지가 관심의 포인트가 된다.

브라질의 국내 닭고기 소비는 저렴한 지육이 약 50%를 차지하고, 닭다리나 가슴살 등 절단육이 35% 정도를 차지한다.

브라질의 국내 닭고기 소비는 저렴한 지육이 약 50%를 차지하고, 닭다리나 가슴살 등 절단육이 35% 정도를 차지한다. 2006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닭고기 수요가 감소하여 지육은 kg당 1.75레알(약 1,187원)으로 전년대비 12.1% 낮고, 가슴살은 2.45레알(약 1,662원)로 전년 대비 16.1% 낮았으며, 닭다리는 1.90레알(약 1,289원)로 전년 대비 22.8%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가격동향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 후로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지육이 동 2.52레알(약 1,709원), 가슴살이 동 3.33레알(약 2,258원), 닭다리가 동 2.64레알(약 1,791원) 등 닭고기 가격은 2006년에 비해 약 40% 정도 상승하였다.

그림 5 브라질의 국내 닭고기 가격 추이



자료: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상위 2개사인 푸즈사와 마르후리그사가 브라질에서 한 해 처리되는 닭고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주력 기업

브라질양계협회(UBA)의 2007년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2개사인 푸즈사와 마르후리그사가 한 해 처리되는 닭고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4개의 개별 기업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개 회사로 합병되면서 업계의 구조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표 4 2007년 기업별 닭고기 처리 실적

단위: 천마리, (%)

기업명		처리 마리수	
브라질푸즈	소계	1,532,450	(31.7)
	구 페르지곤	803,392	
	구 사디아	729,058	
마르후리그	소계	489,371	(10.0)
	구 세아라	270,171	
	구 마르후리그	219,200	
도옥스프랑고솔		255,941	(5.3)
디프로마테		130,952	(2.7)
아우로라		113,813	(2.4)
기타		2,314,869	(47.9)
합계		4,837,396	(100.0)

자료: 브라질양계협회(UBA), 브라질계육수출업자협회(ABEF)

먼저 브라질푸즈사는 2009년 5월에 합병에 의해 태어난 기업으로, 그 때까지 제1위와 제2위의 지위에 있던 사디아사와 페르지곤사가 합병함에 따라 연간 처리 마리수가 30%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세계 유수의 거대기업인 브라질푸즈사가 되었다. 사디아사와 페르지곤사는 함께 식육제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세계 10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등 다각적 경영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경영패턴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디아사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달러화의 급격한 저하 때문에 금융 파생상품으로 큰 환차손이 발생하여, 같은 해 순손실이 24.8억 레알(약 1조 6,821억원)이나 되었다. 이는 사디아사가 창업한 이후 64년간 가장 큰 손실이었다. 2007년에는 7.68억 레알(약 5,209.3억원)의 순익을 보였지만, 불과 1년 만에 자금조달 부족으로 라이벌 기업인 페르지곤사에 흡수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 마르후리그사는 2009년 9월 카길사로부터 세아라사를 인수하였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쇠고기 가공 처리가 주 취급품목이었지만, 2008년에 국내 중견 클래스의 닭고기 처리기업 3개 회사(데그란제사, 페나브란카사, OSI그룹)를 인수하여 닭고기산업에 참가하는 등 식육산업으로 경영다각화를 도모하여 왔다. 이러던 가운데, 2009년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업계 3위의 세아라사를 수중에 넣게 됨으로써 국내외 닭고기 산업에 있어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표 5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 상위 5개사의 조직 개요, 2009년

	브라질푸드 Brazil Foods S.A.	마르후리그 Marifrig Group	도옥스프랑고술 (Doux FrangoSul S.A.)	디플로마테 (Diplomate)	아우로라 (Aurora)
오너	민간(브라질) 구 베르자몬 68% 주식보유, 구 사디아 32% 주식보유	민간(브라질) 화장 68% 주식 보유	민간(프랑스, 외제) 도옥스 그룹	민간(브라질) 개인 오너	협동조합(브라 질, 조합수 70, 17자부
본사	상파울로	상파울로	리오그란데스울	파라나	산타카타리나
설립연도	2009년 5월 구베르자몬 1939년 닭고기 참여 구 사디아사 1944년 설립	1999년 2009년 9월 세아리를 카 길로부터 매수	1970년 1998년 프랑코술을 매수	1976년	1909년
종업원	119 천명	국내 32 천명 해외 60천 명(구 세아리사원)	8천명(2008년 국제금 융위기 이후 25천명을 해고)	자료 없음	13천명
주요 영업분야	식육제품, 우유유제품, 양계 양돈, 육우육, 낙농	식육제품	식육제품(닭고기, 돈육)	식육제품, 유 제품	식육제품 (닭고기, 돈육, 소육, 유제품)
계열양계농장	10,700 농장	4,000 농장	3,000 농장	1,500농장	자료없음
1일 닭처리 능력	57개사설 1,546천 마리 이상 그 외 약 3,000천마리 이상 의 사설 처리	14개 사설 2,500 천마리	4사설 4,000천 마리	3사설 540천 마리	3사설 420천 마리
기타	취급상품은 다양(마카린, 파 스타, 식용유, 조리식품, 피 자, 디저트, 유제품 등)	철면조 2사설 30천 마리/ 알, 야자야향에 식육병 장처리사설 보유, 잡배산터 9개 보유, 종계상 6 개 사설	배향사료 5사설 부화장 7사설	도축장 3사설 배향사료 2사 설, 부산물처리 2사설	매상고 중 국산사료 88%, 해외사료 17%
국내총판 매실적	263억 레알 그 중 닭고기 관련 4%	43억 달러(구 세아리는 17억 달러)	1억 700만유로 (그룹전체의 6%)	18억 레알	26억 7백만 레알
수출총판 매실적	106억 레알 그 중 닭고기 관 련 67%	닭고기, 돈육 모두 수출 량은 제 2위	567백만달러(2007), 세계 140개국에 수출	닭고기제품은 155천 톤	닭고기제품은 78천톤

자료: 민간조사회사

수출 실적

닭고기 및 닭고기 조
제품 수출량, 수출액
을 보면, 2003년에는
각각 1,960천 톤,
1,799백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3,635천
톤, 5,814백만 달러
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 수출액을 보면, 2003년에는 각각 1,960천 톤, 1,799백만 달러(약 2조 1,588억원 : 1 달러=1,200원)에서 2009년에는 3,635천 톤, 5,814백만 달러(약 6조 9,786억원)로 지난 7년간 수출량은 85%, 수출액은 223% 증가하였다. 생산 규모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2006년에는 수출량이 4.6% 감소, 수출액도 8.5%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도 수출량 0.3%, 수출액 16.3%가 감소하였다. 수출의 경우 2006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은 남부가 5,300백만 달러(약 6조 3,600억원)로 이 지역만으로도 연간 총수출액 6,949백만 달러(약 8조 3,387억원)의 76.3%를 차지하였다. 브라질농업연구개발공사(EMBRAPA)의 조사에 따르면, 수출에서 육상운송비가 선적 가격의 6%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항에 가까운 지역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게 되어, 수출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수출 상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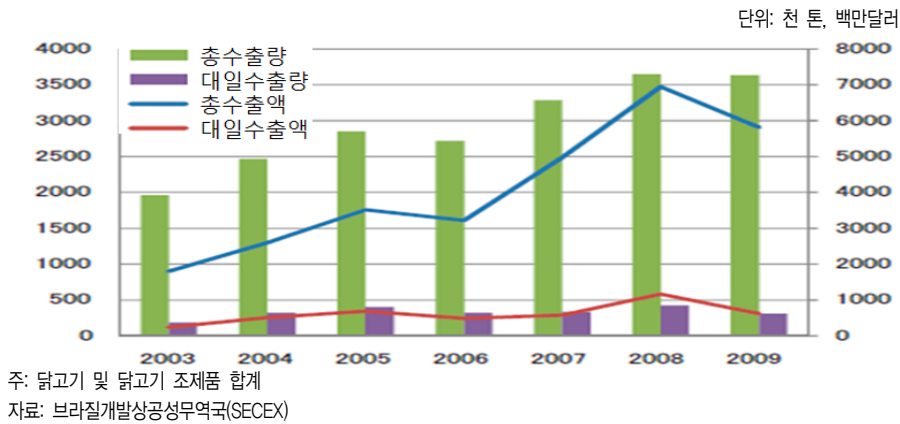


표 6 2008년 지역별 수출액

단위: 천 달러, (%)

지역	주	수출액
남부	계	2,299,636 (76.3)
	파라나	1,806,531 (26.0)
	산타카타리나	2,042,372 (29.4)
	리오그란데스울	1,450,733 (20.9)
남동부	계	744,955 (10.7)
	상파울로	548,388 (7.9)
	미나스제라이스	196,567 (2.8)
중서부	계	773,949 (11.1)
	고이아스	292,450 (4.2)
	매트그라스드울	275,378 (4.0)
	매트그라스	206,121 (3.0)
기타		130,243 (1.9)
전국		6,948,783 (100.0)

주: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합계
자료: 브라질개발상공성무역국(SECEX)

UBA 등의 2008년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은 수출에 있어서도 국내생산과 마찬가지로 상위 2개 회사인 브라질푸즈사와 마르후리그사가 연간 수출량의 6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시장보다도 더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수출액 6,949백만 달러(약 8조 3,387억원) 중 냉동 부분육은 52%, 냉동 지육은 32%를 차지하여, 국내소비 경향과는 달리 단가가 비싼 냉동 부분육이 수출에 있어 수익의 주체가 된다. 앞으로 업계의 구조개혁이 한층 진행될 경우, 중소규모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함께 해외자본에 의한 다각적 경영기업인 브라질 타이슨사의 움직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08년에 브라질 닭고기 산업에 진출한 타이슨사의 동년 수출실적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지만, 2010년에는 EU 수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산타카타리나주 이타이오폴리스에서 신규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해진다.

3. 최근 수급 동향-국제금융위기의 영향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닭고기 수출량 세계 제 1위인 브라질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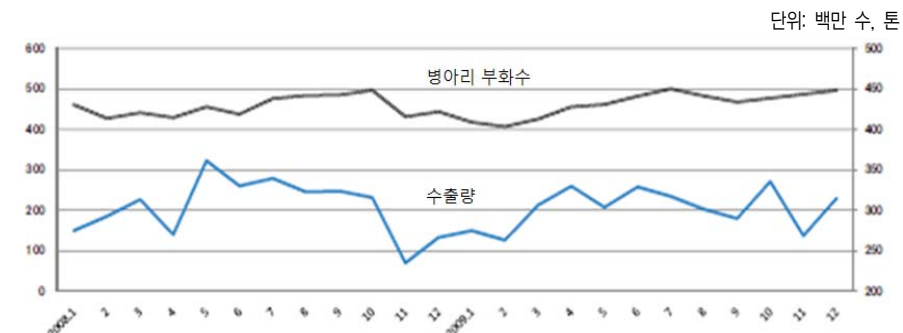
이처럼 브라질 닭고기 산업은 최근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가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닭고기 수출량 세계 제 1위인 브라질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2008년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은 5월 361천 톤, 상반기(1~6월)에는 1,842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7.1%증가하는 등 순조로운 증가 추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9월 미국의 금융위기가 보고되면서 해외시장 수요가 감소하여 11월에는 235천 톤으로 감소하는 등 5월~11월까지 6개월간 34.9%의 대폭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로 인해 국내시장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력상품인 냉장 지육가격이 8월에는 kg당 3.1레알(약 2,102원)에서 11월에는 동 2.76레알(약 1,872원)까지 11.0%나 하락하는 등 국내가격이 일제히 하락하였다.

UBA에서는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2월까지 사육마리수를 20% 감소시키도록 회원사에 촉구하였다. 이로 인해 병아리 부화 마리수는 2008년 10월 496.2백만 마리에서 2009년 2월 406.9백만 마리로 18.0% 감소하였다. 2008년 12월의 국내 냉장 지육가격은 병아리 공급마리수 감소와 연말수요 증가와 더불어 동 3.07 레알(약 2,082원)로 11월에 비해 11.2%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7 병아리 부화 마리수와 수출량 추이



주: 병아리 부화수 2009년 11월, 12월은 추정치
자료: 브라질양계협회, 브라질 브로일러용 병아리 생산자협회(APICO)

2009년 2월에는 국내가격과 수출량 모두 반등하여 5월까지 회복 경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6월에 중국이 브라질의 26개 시설에 대해 닭고기 수출 인정

허가를 실시하여 2009년 후반에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이 생겼다. 이 때문에 수출용 닭고기를 확보한 후 생산을 증가시켜, 7월에는 병아리 부화 마리수가 2월보다 22.9% 증가한 500만 마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의 수출수요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중국 이외의 해외시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가가 비싼 냉동 부분육을 중심으로 수출해 온 일본, 러시아로의 수출 수요가 큰 폭으로 떨어져, 2009년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47.3% 감소한 611백만 달러(약 733억원), 러시아에는 동 57.3%감소의 104백만 달러(약 125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브라질 닭고기산업의 수출수익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국내시장을 보면, 6월과 7월에는 수출용으로 들어가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자 가격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8월 이후에는 중국시장을 예상하여 생산한 닭고기 잉여분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어 국내가격이 다시 하락하였다. 따라서 2009년에는 국내가격, 수출량 모두 전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표 7 수출지 국별 수출 상황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

구분	수출국	2008년			2009년			2008/09 증감률	
		수출금액	수출량	가격	수출금액	수출량	가격	수출금액	수출량
주요 수출지	사우디아라비아	529,745	318,3729	1.7	543,821	398,772	1.4	102.7	125.3
	베네수엘라	508,106	302,83	1.7	290,271	164,310	1.8	57.1	54.3
	아랍에미리트	231,052	138,310	1.7	182,071	135,884	1.3	78.8	98.2
	쿠웨이트	219,944	130,259	1.7	190,001	148,526	1.3	86.4	114.0
	예멘	89,958	50,397	1.8	88,373	67,270	1.3	98.2	133.5
	기타	628,238	396,268	1.8	632,144	483,574	1.3	100.6	122.0
	합계	2,207,043	1,336,465	1.7	1,926,681	1,388,336	1.4	104.6	104.6
주요 수입지	일본	1,158,940	417,429	2.8	611,118	302,585	2.0	52.7	72.5
	홍콩	557,575	410,605	1.4	580,349	421,729	1.4	104.1	102.7
	러시아	242,651	120,614	2.0	103,540	65,627	1.6	42.7	54.4
	사우디아라비아	198,546	78,227	2.5	196,072	94,383	2.1	98.8	120.7
	네덜란드	178,726	61,068	2.9	171,633	67,102	2.6	96.0	109.9
	기타	1,275,745	841,082	1.5	1,222,876	911,708	1.3	95.9	108.6
	합계	3,612,183	1,929,025	1.9	2,885,588	1,863,134	1.5	79.9	96.6

자료: 브라질개발상공성무역국(SECEX)

4.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획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방역 연습

브라질에서는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확인된 바 없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생산활동 제한 조치가 강요되기 때문에, 남부처럼 닭고기 생산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그 피해

브라질 농무성은 만일에 대비하여 2009년 7월말에 파라나주 사바우자시에서 최초로 방역연습을 실시하였다.

가 막대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브라질 양계현장에 있어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브라질 농무성(MAPA)은 만일에 대비하여 2009년 7월말에 파라나주 사바우자시에서 최초로 방역연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습은 MAPA와 판아메리칸 구제역협회 공동개최 하에 수의사, 육군병사, 군경찰, 양계관계자, 현지 시청 및 국내 8개주의 농무부 등 총원 180명이 참가하여, 파라나주 내의 양계장 7개 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연습 당일 소독팀, 검사팀, 폐사계 처리팀 등으로 나누어, 발생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3km의 이동제한지역과 반경 10km의 반출제한지역을 설정하고, 바이러스를 지역 내에 묶어두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인제 육성과 시뮬레이션 검증에 그 목적이 있다. 참가자에게는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고,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가운데 연습이 진행되었다. 현재 MAPA에서는 이번 연습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국에 국제 교섭전문관 배치

2009년 MAPA는 브라질 대사관에 무역 관련 국제교섭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농업 아타셰(전문관)를 배치하기 위한 선발을 실시하였다.

2009년 MAPA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스위스,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일본, 미국 등 8개국 브라질 대사관에 무역관련 국제교섭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농업 아타셰(전문관)를 배치하기 위한 선발을 실시하였다. 이 교섭전문관은 위생식품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근거하는 문제 등 무역장벽과 관련된 일이 새로 발생할 경우 기술적 지식을 발휘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MAPA 애그리 비즈니스 국제교류국의 세리오 포트 국장은 연말 정부홍보 인터뷰에서 ‘브라질 무역교섭에는 농업분야 전문 기술 지원이 부족했다. 앞으로 아그로비즈니스 교섭에는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분야 전문가는 필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교섭전문관은 공모에 의해 선발되며,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개시되어 빠르면 4월경 임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신규시장 개척

매년 4월경 브라질 개발상공성 무역촉진국(SECEX)은 무역촉진에 관한 행동계획을 공표하여 분야별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인데, 이에 앞서 브라질 닭고기수출업자협회(ABEF) 등 업계 단체는 2010년 2월 앞의 국제교섭 전문관 8명에 대해, 브라질 닭고기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요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ABEF의 시장개척 매니저에 의하면, ‘2010년은 2009년에 수출량이 감소한 일본,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레이트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2009년에 실적이 늘지 않았던 중국은 물론, 인도, 아프리카 여러 국가(수단 등), 이슬람권 여러 국가(인도네시아 등)에도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가격이

비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맺음말

최근 세계규모로 성장한 브라질 닭고기 산업이지만, 이와 같은 성장이 처음부터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2008년 가을 국제금융위기는 브라질 닭고기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해외시장 냉각에 의한 수출량 감소, 국내외 가격 하락에 의한 수익 감소, 금융 파생상품에 의한 고액 손실 및 이에 따른 업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전반과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내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만 가는 닭고기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2009년에는 국내가격, 수출량 모두 전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2010년에는 지금까지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작년에 있었던 시장 축소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나 수송비를 어디까지 절감할 수 있을지,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기업 통합 및 제품 다양화가 얼마나 진전될지, 해외시장의 신규개척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만약에 발생할 경우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매우 많다. 현재 브라질 국내에서는 2014년 축구·월드컵 대회, 2016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어, 내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전체가 밀물 분위기인 가운데 브라질 닭고기 산업이 이 물결을 어떻게 이용하여 다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에는 지금까지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작년에 있었던 시장 축소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